

新資料 - 朝鮮佛畫

朴 銀 卿

Park, Eunkyung

東亞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助教授

녹색으로 둘러싸인 산길을 따라 가다보면 저멀리 寺刹의 - 柱門이 어렵듯이 보인다. 마치 解脫에 이르는 歷程을 암시하듯이 가파른 언덕길과 적잖은 계단과 전각문을 거쳐, 부처님 계시는 金堂을 향해 다가간다. 그러다보면 회색바지를 입은 속세의 보살들, 회색승복을 착용한 스님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 寺刹巡禮를 통해서.

최근 몇 년간 都心속에서도 ‘회색 붐 Boom’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고려·조선시대 불화전시 및 관련 출판물이 눈에 띈다는 이야기이다. 솔직히 말해 붐이라고 하기에는 숫자상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비하면 확실히 괄목할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1978년 일본 나라(奈良) 야마토분카칸(大和文華館)에서 전시된 <高麗佛畫展> 이래, 국내 호암갤러리에서 열린 <高麗, 영원한 美 高麗佛畫展>(93.12.11-94. 2. 13.), <大高麗國寶展>(95.7.15-9.10), <朝鮮前期國寶展>(96.12.14-97.2.11) 등을 통해 불화에 대한 관심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높아졌다. 또한 지난 해 일본 야마쿠치(山口)현립미술관에서 개최된 <高麗·李朝の佛教美術展>(97.10.16-11.16)은 西日本지역을 중심으로 각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조선시대의 불교미술(佛畫/佛像/鐘)을 한자리에 모아 소개한 전람회였다. 그 중 전시품의 한 장르였던 불화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다수의 작품들이 그 면모를 드러내어 야마토분카칸(大和文華館)의 <高麗佛畫展> 이래 뜻깊은 전시회였다.

그리고 최근 국내에 불화관계 출판물도 많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 도판편과 논문·작품해설편 2권으로 구성된 《高麗時代の佛畫》(菊竹亭一·鄭于澤編, 시공사, 1997.4.) 책은 불교학계는 물론이고 특히 불교회화 연구자 및 관계자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불러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국내소장 9점을 비롯해 국외소장 작품 120점 이상을 수록한 풍부한 도판자료, 제공된 도판자료의 原畫에 가까운 선명성, 그리고 각종 모티브와 디테일의 과학적 제시 등을 담

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항들은 原Original 작품 조사를 필수로 하는 美術史 연구자들에게 난관의 하나인 국외소장 자료와의 해후에 대한 갈증을 1차적으로 해소시키고 있다.

조사연구에 기초한 연구실적물 소개의 축적은, 지극히 表層的이고 時的인 ‘붐’ 현상을 초월하여 보다 더 佛教美術文化를 이해할 수 있다는데 누구라도 공감할 것이다. 본인도 그 연장선상에서 96-98년에 국외에서 전시 공개된 신작품과 일본 사찰에 소장된 작품조사를 통해 얻은 1차적인 데이터를 이 지면을 빌어 제공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이 방면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日本 倉敷市 地藏院藏 <阿彌陀如來坐像>도 1·2·3

이 작품은 화면의 네변이 각각 조금씩 잘려나가 하단 여백에 기술되어 있는 명문이 다소 손상을 입고 있다. 銘文은 화면 하단 좌측과 우측 두군데에 화기란을 각각 만들고 墨書로 기재하였고, 바탕시주·금시주·채색시주를 비롯하여 여러 시주자들의 이름과 畫僧·供養主 등을 밝히고 있다.

「季月/彌陀後佛基/基施主文○/金施主文○世/采色施主朴君○/布施主宗日兩田/施主閔昌兩田/施主○千兩○/○/施主金華/施主尹○/施主金意忠兩○」(向右側墨書銘)
 「供養施主朴君○/施主○兩主/施主庚○兩主/施主富和兩主/施主尹鶴兩主/施主尹希兩主/施主鶴德兩主/畫員靈修比丘/供養主忠意」(向左側墨書銘)

본 화면은 삼베 3폭(향우측부터 各幅 24.0, 34.8, 23.2cm)을 옆으로 연결하여 한 화면을 이루고 있다. 朱色바탕의 삼베에 존상의 육신은 금니를 바르고, 육신선은 먹선의 밑바탕선 위에 철선묘의 주선을 겹쳐 굵고 있다. 그외 의습선이나 대좌의 윤곽선은 白線으로 처리한 白色線描畫이다. 조선시대 선묘불화는 朱色 혹은 紺色絹地の 대화면에 금니선으로 묘사한 것으로 당시에 소위 ‘純金畫’ 혹은 ‘金畫’ 라고 일컫었고, 이 순금화는 금·은으로 장식된 사경이상으로 왕실불화로서의 독자적인 전개를 보여준 작품이었다. 이에 대해 종교의 세속화와 더불어 일반 민중발원의 불화는 견본과 순금대신에 삼베바탕에 금니묘 대신에 백선 혹은 황색선묘를 사용한 麻本佛畫가 등장하였다.(朴銀卿, 『조선전기 線描佛畫-純金畫』, 『美術史學研究』206호, 한국미술사학회, 1995.6.)

본 작품은 전체적으로 금색의 탈락이 눈에 띄나 도상은 대체로 잘 남아있다. 도상구성은 반측면향의 아미타좌상이 화면 전체를 압도하듯이 크게 차지하고, 화면상단 좌우측에 소형의 관음상과 세지상을 각각 배치하고 있다. 고려 내

영형식의 아미타는 거의 입상인데 비해 본 작품은 좌상인 점이 눈에 띈다. 여래의 법 의는 백선과 굵니를 사용 구갑연결문, 당초화문, 위문등의 문양으로 장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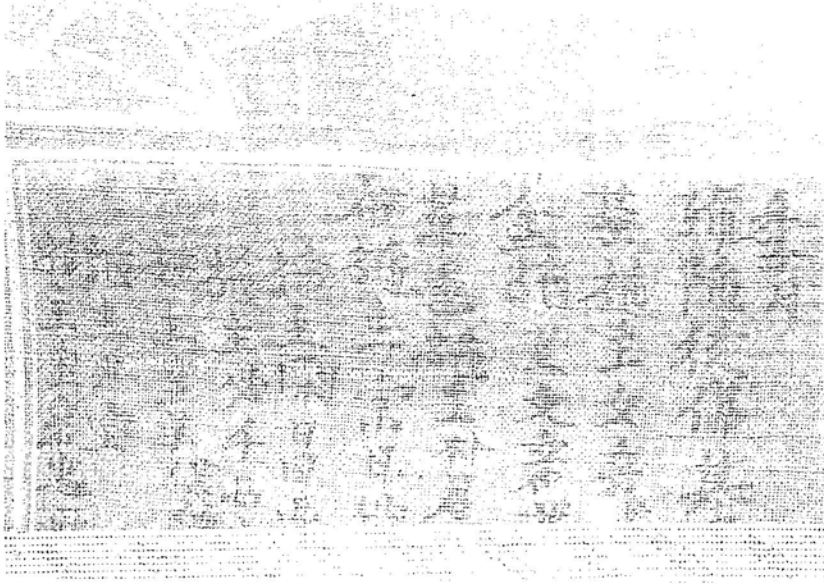
도 1. <阿彌陀如來坐像>

日本 岡山縣 倉敷市 地藏院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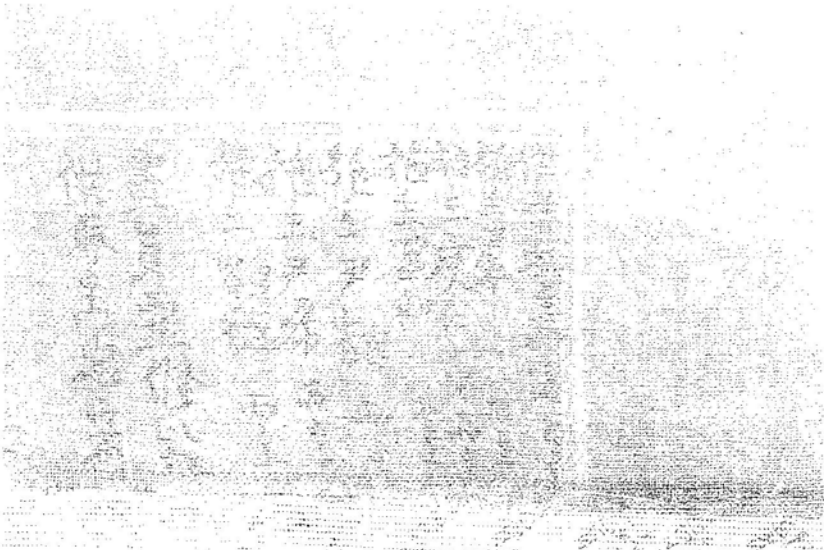
朱地麻布白線描 120.5×82.0cm 3副1鋪 조선 16세기

畫記欄 各幅 5.4×11.6cm(向右側) 5.9×8.7cm(向左側)

이 작품은 <岡山縣立博物館だより>4號(1973.7.)에 瀬戸内の 舶載品을 소개 하면서 도판자료가 공개되었고, 前田淳이 <中國四國地方の朝鮮佛畫>(《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50號, 1981.6)를 소개하면서 도판자료와 함께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에 <高麗·朝鮮の佛教美術展>(岡山縣立美術館, 1997.)에 소개되었다.



도 2. <阿彌陀如來坐像>도 1 부분



도 3. <阿彌陀如來坐像>도 1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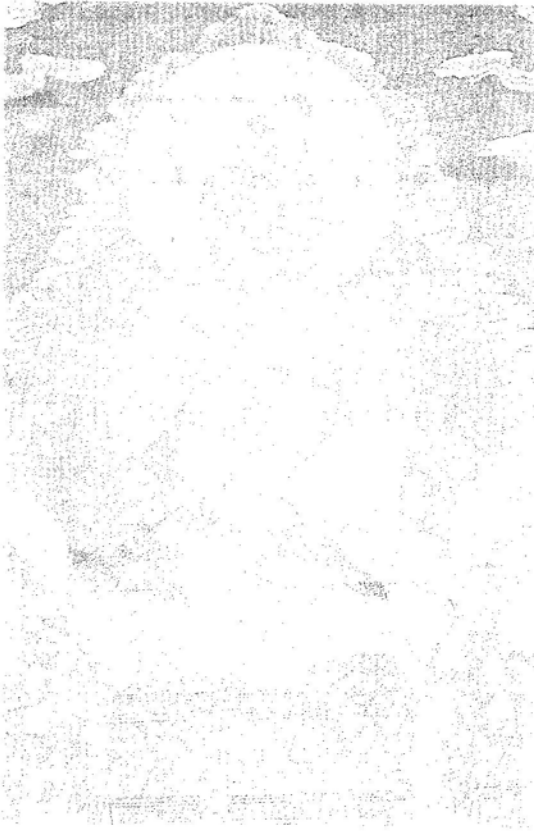
2. 日本 鳴門市 正興寺藏 <阿彌陀三尊圖>도 4·5

도처럼 3폭의 삼매(各幅 13.8, 37.1, 22cm)를 옆으로 연결하여 한 화면을 이루고 있다. 본 작품은 안료의 변색이 심하고 파손된 부분도 다소 있으나 도상 파악에는 부리가 없다. 작품이 보관되어 있는 상자 蓋部에 「藥師尊像(以下略)」이라는 묵서명이 있으나, 좌협시는 손에 정병을 쥐고 있는 觀音像이고, 우협시는 왼손에 經冊을 받들고 있는 勢至像으로 미루어 아미타삼존 도상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화폭의 크기나 본존과 협시를 구분짓는 상하 2단구조 등으로 보아 고려 아미타삼존 형식을 이어받은 조선전기의 아미타삼존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불화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작품이다.

안료는 주로 朱·群靑·綠靑色을 사용하였고, 삼존 모두 피부색은 거의 변색이 되어 어두운 적갈색 빛을 띠고 있으며, 안면부의 특징은 거의 알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단지 먹선으로 윤곽을 잡고, 입술은 朱色, 검은 눈동자 둘레의 백



도4. <阿彌陀三尊圖>
日本 德島縣 鳴門市 正興寺 소장
麻布彩色 82.1×53.0cm
·副1鋪 조선 16세기



도 5. <阿彌陀三尊圖>
(도 4 부분)

안에는 백색을 약간 절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미타의 두부에서 급격하게 솟아오른 육계위에 육계주가 놓여 있는 형태, 그리고 존상 배경의 서운분 표현 등은 16세기 불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양식이다. 천공은 균정으로 바르고 구름의 緣部에는 백색을 넣어 바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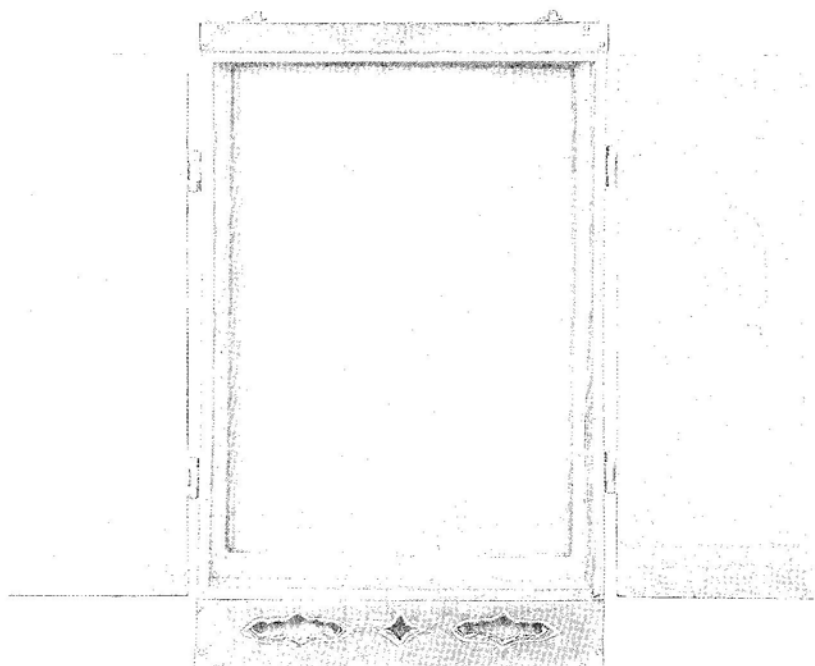
이 작품은 前田崙, <中國四國地方の朝鮮佛畫>(『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50號, 1981. 6.)에 소장처와 도판자료만을 밝힌 바 있다.

3. 日本 個人藏 <阿彌陀三尊圖>도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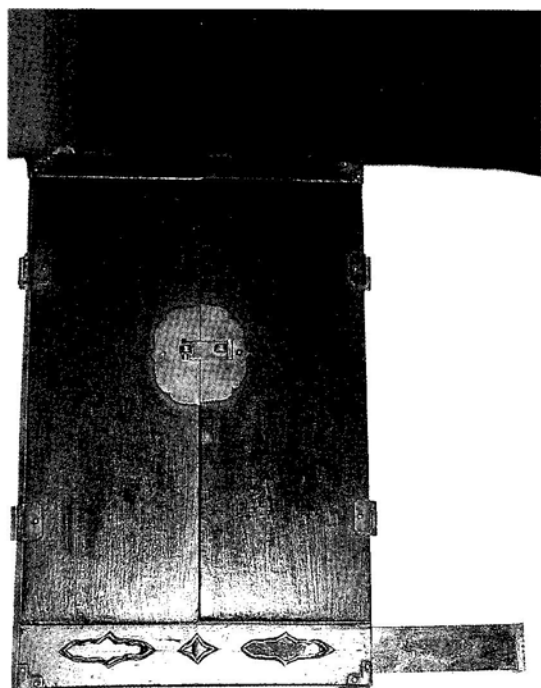
이 불화는 야마쿠치(山口)현립미술관에서 개최된 <高麗·李朝의 佛敎美術展>(97. 10. 16-11. 16) 전시때 처음 공개된 작품이다. 직사각형 廚子 좌우의 門扉를 열면, 廚子 안쪽 중앙에는 阿彌陀坐像이 위치하고, 향우쪽의 문안에는 觀音像 왼쪽에는 勢至像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廚子의 크기는 두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소형이다. 본 작품은 당초부터 이 廚子안에 안치된 것으로 보여 그런 점에서 더욱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廚子의 아랫단에 능화형 안상문이 투조되어 있고, 그 안쪽에는 오른쪽(향우)에서 빼고 넣을 수 있는 소형 서랍이 설치되어 있다. 이 서랍 안에 미니쥬어 經典이나 종을 넣어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화면표면은 전체적으로 더럽혀져서 칙칙한 검붉은 색을 띠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간 부분을 참조로 하면 당초의 화면은 밝고 선명한 주홍색이었다고 판단된다. 삼존은 육신을 제외하고 붉은 색을 바르고 있다. 존상의 육신은 황색을 띠고 있고, 먹선으로 윤곽선을 그리고 있다. 그외 윤곽선은 도1의 경우와 같이 한가지 색으로 통일하여 묘사하고 있다. 단, 주목할 것은 髮際線이나 의습의 윤곽선 처리가 바탕화면으로 부터 약간 솟아오른 상태이며, 윤곽선이 연한 황색을 띠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흰색도 보인다. 이것은 아마도 선을 강조하기 위해 면서 靚粉을 사용하여 윤곽을 잡은 뒤 그 위에 황색안료를 겹쳐 그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는 소위 조선전기 왕실분화의 독특한 화풍인 純金畵의 금선묘에 대응한 수법으로 볼 수 있다.



도6. <阿彌陀三尊圖>日本 個人소장
 丹色地麻布에 黃線描
 화면크기 25.1×17.6cm(본존) 22.0×8.8cm(좌협시) 22.3×8.8cm(우협시)
 조선 16세기



도7. 廚子키
32.2×21.5×4.1cm

이 작품의 용도는 크기가 시사하듯이 사찰보다도 개인의 신앙심 차원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재질과 화법으로 보아 왕실보다는 일반 사대부 혹은 경제력있는 民衆차원에서 봉안되었을 것으로 본다.

4. 日本 岡山縣 金峰寺藏 <阿彌陀八大菩薩圖>도 8·9

이 작품은 현재 화면하단과 좌우가 다소 잘려나간 상태이다. 중앙의 阿彌陀坐像을 중심으로 좌우에 八菩薩像과 四天王像을 배치하고 있다. 이 작품은 화면의 크기나 도상배치가 고려 아미타팔대보살도 형식을 이어 받고 있으나, 다만 도상구성상 사천왕상이 첨가된 점이 이색적이다. 8보살상을 보면 가장 앞줄에 나란히 서있는 보살중 안쪽 2구는 보관에 화불과 왼손에 정병을 쥐고 있는 관음상과, 보관에 수병과 손에 經冊을 권 세지보살상이다. 바깥쪽 2구는 손에 연봉대를 쥐고 있고, 그 뒤쪽으로는 합장한 보살 3구와, 보주와 석장을 각각 손에

권 지장보살상이 배치되어 있다.

아미타의 두부는 도:처럼 육계가 뾰족하게 솟아오른 형상으로 조선 16세기 불화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안료는 주로 朱·綠靑(탈락 혹은 변색으로 갈색을 띠고 있음)·황토·군청을 사용하며, 朱具와 백색안료도 사용하고 있다. 아미타의 육신은 黃白土이나 부분적으로 주색을 바림하였는지 붉은 색 안료의 미세한 입자가 보인다. 보살의 경우는 황백토 이외에도 朱具를 사용하고 있으며, 육신선은 먹선위에 주선을 겹쳐 긋고 있다. 그리고 조선 16세기이후 麻木佛畫의 특징의 하나인, 분존 안면부의鼻翼을 이중으로 겹쳐 묘사하고 있고, 상하단에는 황선으로 화면을 구획짓고 있다. 또한 조선전기 불화에 많이 보이는 군청마탕의 기슭에 백색안료의 꽃무늬를 印花文처럼 일정하게 흘뜨리고 있다.

본 작품은 小聖敎也。岡山縣社寺所有資料調査報告書(岡山縣教育委員會, 1991년)에 조선불화 2점을 보고하면서 金峯寺 소장 작품을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다.



도 8. <阿彌陀八大菩薩圖>
日本 岡山縣 眞備町
金峯寺 소장
麻布彩色 82.8×55.2cm
조선 16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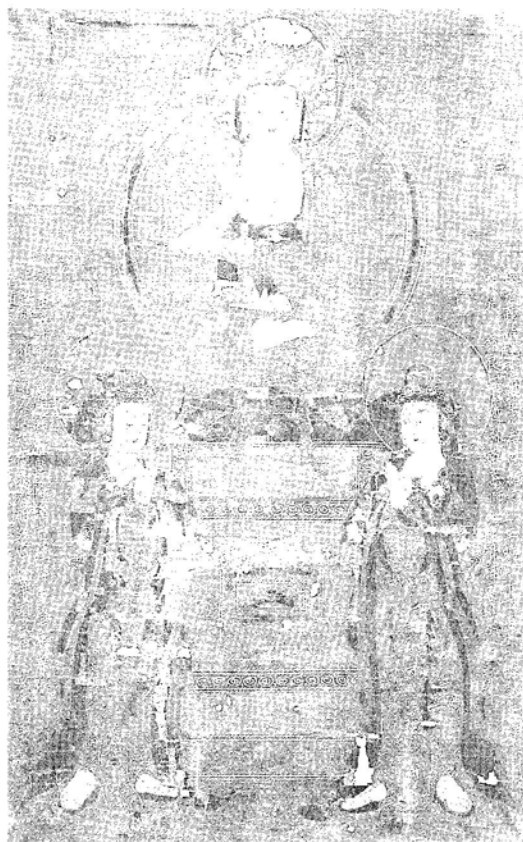


도 9. <阿彌陀八大菩薩圖>
(도 8 부분)

5. 日本 廣島縣 寶壽院藏 <藥師三尊圖>도 10·11

이 불화는 비단바탕에 금니와 천연안료를 사용한 16세기 明宗代의 王室畫風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화면은 전체적으로 화견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 많고 손상을 입고 있으나, 존상의 육신부나 명문은 잘 남아 있다. 畫幅의 크기는 세로 53.4, 가로 33.2cm로 두 손으로 쥘 수 있는 작은 화면이다. 현재 厨子내에 안치되어 있으나 제작당시의 형상은 아니다.

화면 중앙에 수미단을 연상하는 높은 방형대 위의 연화좌에 앉은 藥師如來를 중심으로 좌우에 日光·月光菩薩을 배치한 藥師三尊像이다. 약사의 오른손은 胸前에서 제1指와 3·4指를 맞대고, 腹前에 위치한 왼손에는 藥函을 살짝 쥐고 있다. 약사의 육계부는 후대에 補彩한 흔적이 뚜렷하다. 두 협사는 서로 몸을 약간 안쪽으로 향한 자세로 두 다리를 벌리고 합장한 채 시립하고 있다. 좌협사는 三足鳥가 묘사된 붉은 원반을 보관에 장식한 日光菩薩이고, 우협사는 절구甞는 토끼를 묘사한 원반을 보관에 장식한 月光菩薩이다.



도 10. <藥師三尊圖>
 日本 廣島縣 宮島町
 寶壽院 소장
 絹本彩色 53.4×33.2cm
 嘉靖44年(1565)

그리고 화면 좌우측 여백에는 金字로 기술한 긴 명문이 뚜렷하게 잘 남아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嘉靖四十四年正月 日惟我 聖烈仁 明大王大妃殿下爲 主上殿下聖躬萬歲
 緣吉神結繩益 狂贊 “麟趾振” 王妃殿下頂娘生知協運天縱恭捐絡
 寶爰命良工釋迦彌勒藥師彌陀普補處供各金畫五十」(向右側金書銘)
 「彩畫五十并四百張莊嚴畢飾諸富楡岩重修慶席依
 法點眼 領諸道入使之禮敬於朝夕常以草封之祝 堯爲山家務
 免墮不忠之抗其 聖德化海可驟謫測於戲千歎」(向左側金書銘)

즉, 嘉靖44년(조선13대 명종20년(1565))에 文定王后 尹氏(聖烈仁 明大王大妃, 조선 제11대 세종의 妃)가 顯主가 되어 明宗의 聖壽와 善政, 明宗妃의 세자탄생을 비롯 하여 왕실안녕을 위해 금은 보화를 내어, 良工에게 명하여 釋迦·彌勒·藥師·阿彌陀를 각기 金畫50幀, 彩畫50幀 모두 400幀을 제작하여 楡巖寺 重修慶席時에 點眼供養하여 이를 받들었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본 작품은 왕실불화로서 그 발원자와 발원대상자, 발원목적과 발원장소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도 11. <藥師三尊圖>
(도 10 부분)

불교를 배척한 조선시대에 400점에 이르는 다량의 불화 제작은 동아시아에 있어 가히 기념비적인 佛事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400점의 불화중 현재 5점이 밝혀져 있다. 즉,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소장 <藥師三尊圖>, 日本 高知市 龍興院소장 <藥師三尊圖>, 日本 名古屋 徳川美術館소장 <藥師三尊圖>, 日本 兵庫縣 江壽寺소장 <釋迦三尊圖>도 의 그리고 뉴욕 버크콜렉션(Mary and Jackson Burke Collection)소장 <釋迦三尊圖>를 들 수 있으나, 앞으로 더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본 작품이 안치된 廚子背面에 陰刻銘이 새겨져 있다. 이 음각명에 의하면, 본 작품이 寶壽院에 전준 하는 경위 및 廚子에 안치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참조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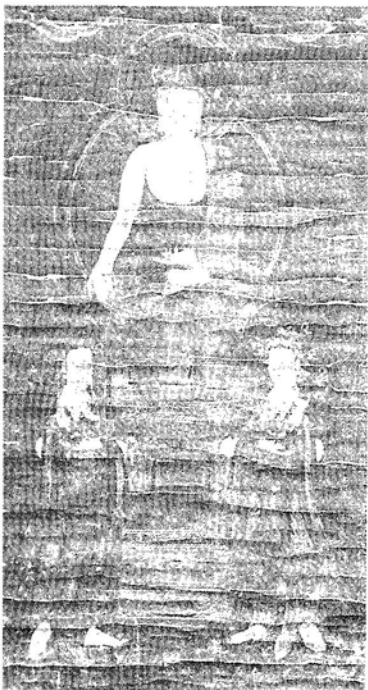
「此嘉熙四年十月所請藥師繪像一幅事見此文繪畫問之先師文祿中問人問齊來有故寄當山之神龜譜當時拜之者唯我二三弟子耳恐後來泯滅其來自英或拜者且秘之不知遍視衆之有大利益也時近者命調藥吉田安興者造佛繪安置諸本堂每歲以四月八日啓之廣令諸人持禮此自他昌地緣歸御職之志願也爲記 文化二陰義在乙丑秋九月 藥鳴池上山志歸瑞神拜奉 施福者廣興 伊庭壽仙(廚子背面陰刻銘)

이 작품은 필자가 <高麗·朝鮮の佛教美術展>(山口縣立美術館, 1997.)에 작품해설을 하였으나, 본 작품을 포함한 400점 불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고는 『美術論壇』 제7호(시공사, 1998.9월예정)에 게재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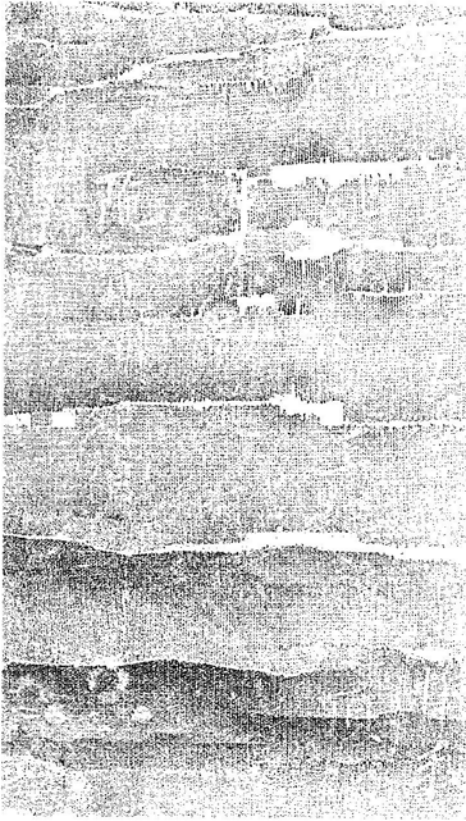
6. 日本 兵庫縣 江善寺藏 <釋迦三尊圖>도 12·13, 原色 7

이 불화는 앞에서 소개한 寶壽院所장 <藥師三尊圖>(도 8)와 같이 1565년에 제작된 400점에 속하는 작품이다. 본 작품은 江善寺藏 및 淡路島文化財를 소개한 글에 약사여래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大日本寺院總覽』下卷, 1974./『淡路常磐草』(출판년대?)外), 높은 방형대위의 연화좌에 항마촉지인을 취한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을 각각 배치한 釋迦三尊圖像이다.

현재 이 작품은 변색이 심하고 옆으로 접힌 자국이 많으며, 두발부분은 후대에 補彩한 흔적이 뚜렷하다. 원래 육계부는 뽀족하게 솟아오른 형상이었을 것이나 후대에 부분적으로 손을 대면서 현재와 같이 완만한 육계상으로 수정된 것이다. 이 점은 寶壽院藏도 8도 마찬가지이다.



도 12. <釋迦三尊圖>
日本 兵庫縣 三原郡 西畑町 江善寺소장
絹本彩色 53.2×28.8cm
嘉靖乙丑年(1565)



도 13. <釋迦三尊圖>
(도 12 부분)

화면 좌우측의 여백과 하단에 金字銘文이 기술되어 있으나, 후대에 표구하는 과정에서 화면 4변이 조금씩 잘려나가 아쉽게도 명문 전모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寶壽院本에서 언급하였듯이 동시에 제작발원된 작품의 명문이 현재 잘 남아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嘉靖乙丑正月日惟我 聖烈仁明大王王妃殿下爲 主上殿下聖躬萬歲 踰解細台 踵結繩論□□」

踰振 王王妃殿下頂賜生知賜誕天縱恭招格寶爰 命良工釋

迦弥勒樂師亦

隨皆補處俱(向右侧金書)

「各金□/五十□/畫五□/并四□/幀莊□/畢備□/當檣□/重修□/席依□」
(下端中央金書)

「點細□□

道人使□禮敬於

朝夕當以華封之祝 堯爲山家務免墮不思之抗

□(잘려나감)

」(向左侧金書)

7. 日本 名古屋 七寺藏 <地藏十王圖>도 14·15. 原色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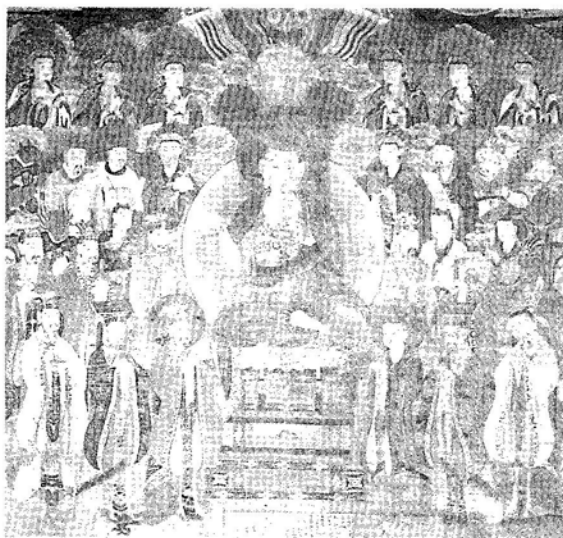
삼베 3폭을 연결하여 화면을 이룬 3副1鋪(名幅 66.0, 38.0, 66.5cm)의 작품이다. 도상구성은 화면중앙의 圓頂形 地藏을 중심으로 좌우에 원형두광을 갖춘 無毒鬼王과 道明尊者를 배치하고, 주위에는 시왕과 6보살상, 그리고 판관·선악동자·공양녀·옥졸 등의 제권속들을 각각 배치하고 있다. 6보살상과 그의 도상들간에는 구름을 삽입 묘사하므로써 존상간의 성격내지는 역할상의 경계를 구분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작품의 도상구성은 조선16세기 일본 淳尊寺, 持福寺, 石手寺, 觀音寺 소장 <地藏十王圖>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려불화의 老僧像의 도명과는 달리 若僧像으로 묘사한 점도 조선시대 지장시왕도의 특징이다. 그런데 시왕중 도상 1구의 자태와 형상이 주목을 끈다. 바로 도명 옆줄의 시왕중 바깥쪽에 위치한 인물이 그러하다. 후두부에서 머리를 1조로 묶은 無藏冠合掌形像으로 유연한 자태를 취한 모습이 다른 시왕들과는 달리 이질적인 분위기가 역력하다. 마치 유교와 관련된 인물을 겸성한 인상을 주고있어, 十王圖像의 變容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사료된다.

안료는 주로 朱·朱具·黃土·綠靑·群靑을 사용하였는데, 부분적으로 녹색 안료의 탈락이 다소 보이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지장의 안면에는 일체 毛筋 표현을 생략하고 있으나,鼻孔에만 가는 먹선으로 細毛를 묘사하고 있어, 조선전기 지장도에 보이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양녀의 이마와 코 등에 보이는 백색안료의 하이라이트 기법은 16세기 絹本佛畫에 자주 보이는 수법이나, 이후 麻本佛畫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양녀를 비롯한 여러 인물의 안면 코묘사에 보이는 二重鼻翼 수법은 물론이고, 범의 가장자리에만 문양 띠를 두르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 장식문양을 억제한 것도 16세기 麻本佛畫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朴銀卿, 『麻本佛畫의 出現-日本 周防 國分寺의 <地藏十王圖>를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199·200, 1993.12. 참조)

화면하단 중앙에 먹선으로 畫記欄을 만들고, 그 안에 해서체 墨書로 제작년 대, 시주, 공양주, 화주, 화승명을 밝힌 명문을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嘉靖三十柒年戊午五月日誌。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
仁慈本祝/
聖等無窮國相安萬一民常樂/彩色大施主梁千壽兩主/大施黃銀孫兩主/施主
張益兩主/ (여백) /畫員比丘章熙/供養比丘皮裕/大化主比丘處行」(畫
面下端中央墨書銘)



도 14. <地藏十王圖>
 日本 名古屋市 七寺소장 麻布彩色 171.9×170.8cm
 嘉靖37年(1558)



도 15. <地藏十王圖>도 14 부분)

8. 日本 大阪市 大福寺藏 <地藏菩薩本願經變相圖>도 16·17

현존하는 조선전기 15·16세기에 해당하는 90여점의 작품중 지장시왕을 테마로한 작품은 현재 15점 이상이 전하고 있다. 그 중 지장보살본원경의 내용을 1쪽의 화면에 묘사한 것은 교토(京都) 지온인(知恩院) 소장 地藏菩薩本願經變相圖(1575-77년) 작품만이 널리 알려져 왔으나, 본 작품의 존재 확인은 지장보살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 작품은 세로 199.0, 가로 211.8cm(7冊1鋪, 各幅 26.2, 33.0, 32.4, 32.4, 33.0, 33.0, 21.6cm)의 삼배마당의 대화면이며, 화면 아래쪽에 구름을 배치하여 상면을 상하로 구분짓고 있다. 즉, 화면 2/3 크기의 상단에는 地藏十王圖를, 1/3 크기의 하단에는 地獄場面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圓頂(形)地藏은 오른 손에는 석장을, 왼손에는 보주를 각각 쥐고 있고, 좌우에 두광을 갖춘 합장형의 도명과 부동이 시립하고 있다. 그 둘레에는 시왕과 재권속을 배치하고 있고, 이들 위쪽에는 6보살상을 배치하고 있으나, 시왕과 6보살상 사이에는 七寺(七도) H처럼 구름으로 구분짓고 있다. 그리고 다시 이들은 모두 서운문으로 에워싸여 있고, 화면 최상단 좌우끝에는 천공을 배경으로 사천왕을 2구씩 각각 배치하여 마치 천공에서 지켜보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처럼 여러 존상들중 판관 및 선악동자를 비롯한 권속들은 시왕상에 비해 급격히 축소된 형태로, 이 같은 현상은 오카야마(岡山) 탄조지(誕生寺) 소장 <地藏十王圖>(麻本彩色, 1582년)에서도 볼 수 있다.

지장의 황백토 육신에 윤곽선은 먹선위에 비교적 굵기가 균일한 주선을 겹쳐 긋고, 선에 따라 붉은 색을 부분적으로 바림하고 있다. 圓頂(頂部)는 백군으로 바르고, 입술은 단색계를 바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색채는 선명하게 잘 남아 있는 편이다. 지장위의 瑞氣는 주, 녹청, 군청 삼색으로 그레듀에이션 효과를 주어 선명함을 더하고, 배경의 운문의 테두리에는 백색안료로 바림하여 양감을 주고 있다.

그리고 하단에는 亡者が 고통받는 여러 地獄苦 場面을 묘사하고 있다. 針樹(가시)에 찢리는 모습, 지은 죄를 거울에 비추는 장면(業鏡), 거꾸로 매달려 고통받는 장면, 육신이 찢히는 장면(梘磨地獄), 鐵末(쇠)위에 육신이 타는 모습, 도끼로 찍히는 모습, 소가 헛바닥 위를 경작하는 장면(舌耕地獄), 구덩이에 빠져 뱀으로 부터 화를 당하는 장면, 鉤(鐵)柱에 묶여 받는 고통(鉤柱地獄), 눈속에서 받는 고통장면(雪景地獄), 펄펄 끓는 솥에 삶는 장면(鑊湯地獄) 등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화면 항우측 끝에는 業輪(업륜)으로 부터 6조의 煙氣(연기)가 발산하는 장면을 묘사하여 六道輪廻를 상징하고 있다. 중앙에는 붉은 탁자위에 놓여진 저울에

선악동자가 善業과 罪業의 무게를 동시에 달아보는 광경이 보이며, 그 저울대 옆에는 불상과 경전 등이 놓여져 있다. 이는 바로 知恩院所藏 <地藏菩薩本願經變相圖>의 지옥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善導하는 장면을 뜻한다. 결국 부처님을 진심으로 敬拜하는 사람, 불상과 경전을 제작하고 시주하는 사람 등은 구제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재 이 작품은 화면외곽에 金絲刺繡의 黃色真緞系布로 표구된 형태(원상태로 보임)이나, 그 가장자리에 후대에 다른 베로 다시 표구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전기 마분불화에 자주 보이는 현상으로, 화면하단에 횡선의 테두리선을 긋고 그 선 아래쪽에 명문을 기술하고 있다. 墨書의 명문은 거의 판독하기 힘든 상태이나, 적외선 촬영사진에 의해 다행히 제작년대가 萬曆丙申年(1596)임을 알 수 있었고, 그 외에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萬曆丙申……之間……創造……施主……施主金……冬……金……(判讀不能) / ……畫員…… / ……供養主……(以下判讀不能)」(畫面下端墨書銘)



도 16. <地藏菩薩本願經變相圖>
日本 大阪市 大福寺 소장 麻布彩色 199.0×211.8cm
萬曆丙申年(1596)



도 17. <地藏菩薩本願經變相圖>도 17 부분)

<追記>

위에 소개한 작품을 조사하는데 도움을 주신 日本 所在의 여러 寺刹과 山口縣立美術館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